



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6. 4. 13.(월)				
배포 일시	2026. 4. 13.(월)				
담당 부서	전시기획팀	책임자	팀장	추가영	(031-324-0761)
	전시기획팀	담당자	주임	장미진	(031-324-0768)

국립농업박물관, 26년 첫 테마전 <금강송 곁에> 개최

-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에 담긴 공생과 순환의 가치 조명 -

- ◇ 전시명: 금강송 곁에
- ◇ 전시기간: 2026. 4. 14.(화) ~ 2026. 6. 14.(일)
- ◇ 전시장소: 국립농업박물관 전시동 복도(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 ◇ 관람안내: 무료 관람
- ◇ 전시체험: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의 순환을 담은 스탬프 투어

□ 국립농업박물관(관장 오경태)은 세계중요농업유산이자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을 주제로, 숲과 사람이 함께 만들어 온 농업유산의 가치를 조명하는 테마전시 <금강송 곁에>를 오는 4월 14일(화)부터 6월 14일(일)까지 개최한다.

*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은 2025년 세계중요농업유산(유엔 식량농업기구 지정)으로 지정되었으며, 2016년 국가중요농업유산(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제7호로 지정되었다.

□ 이번 전시는 하천에서 숲으로 이어지는 자연 지형을 따라 형성된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을 소개하고, 자연과 사람이 함께 만들어 온 공생과 순환의 의미를 관람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관람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스탬프 투어를 마련해 책갈피를 완성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전시는 총 3부로 이루어지며, △ 1부 ‘시간의 축적, 붓도랑의 산지 농업’, △ 2부 ‘금강송과 송이 이야기’, △ 3부 ‘기르는 숲, 살아가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 1부 ‘시간의 축적, 붓도랑의 산지농업’에서는 하천을 따라 조성된 논과 보·도랑을 활용한 농업 방식을 살펴보고, 논과 밭에서 금강송 숲으로 이어지는 산지농업 구조를 소개한다.
 - * ‘보’는 하천의 물을 막거나 가두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이며, ‘도랑’은 물을 논과 밭으로 나누어 보내는 수로이다.
- 2부 ‘금강송과 송이 이야기’에서는 금강송과 송이버섯의 관계를 소개한다. 송이버섯은 숲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주민들의 관리가 더해질 때 잘 자라는 특성을 지니며, 이를 통해 자연과 사람이 함께 만들어 온 공생의 의미를 전달한다.
- 3부 ‘기르는 숲, 살아가는 사람’에서는 숲과 사람, 농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어져 온 환경 속에서 다양한 동식물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이 가진 순환의 가치를 조명한다.
- 오경태 국립농업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는 세계중요농업유산이자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의 공생과 순환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라며 “관람객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농업의 의미를 되새기고 농업유산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테마전 <금강송 곁에> 홍보물

2026 국립농업박물관 테마전

금강송 곁에

2026.

 국립농업박물관

4.14. ~ 6.14.

국립농업박물관 전시동 복도

테마전 <금강송 곁에> 홍보물